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5호 [루계 제25113호] 주제 104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위대한 당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 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  
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친어버이정으로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 같은 사랑에  
떠들리워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  
할만한 로동당시  
대의 멋쟁이건축물  
로 웅장화려하게  
전변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  
건된 만경대학  
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조용원동  
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해 5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  
들의 궁전으로 개건할대 대한 파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 및 건설력량을 투입해주시고 자  
재보장대책도 세워주시었으며 개건과  
관련한 백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건의  
형성안도 품소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  
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  
들은 낫파 밤이 따로없는 출기찬 전  
투를 벌려 수만m<sup>2</sup>의 건축면적에 대한

개건 및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궁전의内外부를 완전히 변모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  
대학생소년궁전의 전경을 바라보시  
며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

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

자태가 품위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  
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수도 흥  
내낼수도 없는 건축물, 우리나라 사  
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파  
시하는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  
현관홀에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는 사적물과 자료들은 대를 두  
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  
이라고 하시면서 궁전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소년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위대한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 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새해를 맞을 때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시어 아이들과 어울려 춤도 추시고 설맞이 공연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이들의 행복 넘칠 래일을 축복하시며 궁전정원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손수 심으신 위대한 장군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일평생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고 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맞이 공연을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 것만 같다고 드리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지도 대형사관과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 운동으로 케트 《은하-3》 모형

등을 설치하여 놓은 과학홀이 특색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소년들이 조국의 자연과 지리를 똑바로 알게 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애심만만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장식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예능홀이 멋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궁전소조원들이 휴식도 하고 기량발표회도 할 수 있게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콤피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 과학기술 소조실들이 배치되어 있는 과학동을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소조실들에 현대적인 서비스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으니 소조원들이 마음껏 배우며 과학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였다.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예능동개건 공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수예소조실, 서예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풍금소조실, 너중창소조실, 성악소조실, 민족기악종합훈련장, 전자악단종합훈련장들이 흥잡을 데가 없다고 하시였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현대적미감과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 어떤 예술공연도 원만히 할 수 있게 전면 시켰다고 말씀하시였다.

국제경기도 할 수 있도록 수영관,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완전히 째벗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체육명수로 키울 수 있게 체육소조실들도 잘 꾸려놓았으며 궁전야외에 건설한 체육장과 자동차 운전실습장도 주변환경과 어울린다고 하시였다.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만경대학생소년 궁전 학숙도 훌륭히 건설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소조운영을 실속있게 벌릴 때 대한 문제, 아이들의 재능의 꽂을 찾아내여 꽂피워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킬 때 대한 문제, 지도교원들의 책임성과 실무적자질을 높이며 교육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때 대한 문제, 시설물들과 설비들을 애호관리하며 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 대한 문제, 궁전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줄 때 대한 문제 등 궁전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은 참으로 방대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고 주체적 건축미 학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었으며 당의 후대관이 그대로 비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된 것만큼 준공식을 세상이 들썩하게 성대히 진행 하자고 하시면서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 어버이 사랑 속에 전변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북반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맑고 창창한 노래소리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 조선직업총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직업총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1월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同志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직행조직을 선군시대의 혁명조직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양형설동지, 오수용동지와 김덕현내각부총리, 농성영, 너네, 부기부문 일군들, 제4차 전국직행보법초급단체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직행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영위와 빛나는 헌신으로써 맞이하기 위한 총동맹전력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시기에 창립

일흔돐을 맞는 조선직업총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직행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조선직업총동맹이 당과 수령의 위업에 충실했던 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어 당파로통제급과 직행원들을 교양개조하여 선군혁명사들로 키우는 위력한 사상교양단체이라는 지적

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찌기 혁명파 건설에서 직업동맹이 노는 역할을 깊이 해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주제 34(1945년) 11월 30일 조선직업총동맹을 창립해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향해 밝혀주시었으며 동맹이 당시의 민족운동 방조자로서 혁명파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결심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직업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차적인 파업으로 풀어주고 동맹안에 강한 규율과 째인 조직 수행체계를 세워 각급 직행조직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

직행조직들은 유동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축하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 혁설강의를 비롯한 동행교양체계를 정착하여 세계우편장관회에서 직행원

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투사들의 대으로 둔튼히 꾸리는



# 수령이 위대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빛난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창립 70돐을 맞으며

우리의 것을 사랑하라!

우리의 것을 지키고 빛내이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힘으로 오늘도 강산에 끌어온 역사에는 이 땅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풍성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이 새월을 주름 잡으며 현실로 절체되고 있다.

이번 가을면 한 시기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종합적인 역사박물관, 나라의 믿음직한 민족신보보호기지,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의 위력한 거점인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 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모으시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세상에 빛내여주시었습니니다.』

반만년의 민족사를 옮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떠치 주신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거룩한 자취가 함축되어있는 70년 역사이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날짜에 더불어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수한 강철의 명령,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깨우신 후세를 위한 역사박물관에서 체계화되고 선조들이 이루어낸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들이 나라의 키중한 새로이 되어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된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튼튼한 대중교양기지가 꾸려지게 되었다.

박물관개관장관파관련한 정무원(당시) 결정을 세택하도록 하시여 이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한시켜주시고 박물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과 자재, 설비, 비품, 유동자료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는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으며 가령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국보적인 문화재들을 구출하고 지켜내기 위한 사업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걸어온 자족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빛나게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의 선길이 뚜렷이 빛나고 있다.

주체 67(1978)년 2월 12일

박물관이 새로 개관되였다는 보고를

를 가진 민족은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탁월한 수령을 보시지 못한 것으로 하여 자기의 말파글, 이 못까지 빼앗긴 망국노의 피눈물을 나는 역사사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전후 새로 진렬전시된 역사유물들과 자료들을 주지의 깊게 돌아보시면서 사람에게 우리 나라 역사사를 옮바로 알려주며 역사유물자료들을 많이 발굴하고 꼭넓게 전시하여야 한다고, 역사유물판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은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주어야 할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였다.

당일의 열전만리를 헤치시며 나라를 찾으시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일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당한 우리의 민족문화를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박물관의 진렬전시에서 주제를 확립하며 역사유물과 자료들은 반드시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학술적성과 흐름이 있다면 꼭거울에 알려주며 역사유물자료들을 많이 발굴되거나 기증되는 가치있는 국보적인 역사유물들을 박물관에 진렬하도록 끝거울을 사랑을 둘러주신 사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국내전시회와 함께 대외교류전시회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해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주제선언의 존엄과 우리 민족의 자랑찬 역사와 믿내이도록 조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가 있던 것이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오늘과 같이 수도의 중심부인 김일성광장에 자리잡고 더욱 훌륭하게 개건강장되게 된것도 박물관을 우리식으로 잘 지을 데 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실현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박물관개관장관파관련한 정무원(당시) 결정을 세택하도록 하시여 이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한시켜주시고 박물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과 자재, 설비, 비품, 유동자료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는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으며 가령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국보적인 문화재들을 구출하고 지켜내기 위한 사업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치도와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민족의 재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다.

주체 67(1978)년 2월 12일

박물관이 새로 개관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박물관을 찾으시여 역사유물보존 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밟혀주시였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수놓아온

70년 역사의 깊이마다 세겨진

백두산철제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

을 다 이기며 하자면 끝이 없다.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풍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발굴되거나 기증되는 가치있는 국보적인 역사유물들을 박물관에 진렬하도록 끝거울을 사랑을 둘러주신 사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국내전시회와 함께 대외교류전시회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해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주제선언의 존엄과 우리 민족의 자랑찬 역사와 믿내이도록 조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정녕 해방후 첫 시기부터 혁명령도의 전기 간 주체적인 조선문화전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밑을 깨우친 거점으로, 튼튼한 전기기로 꾸리도록 끝거울에 이끌어 오신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

슬기와 재능이 깃든 역사유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환히 페어보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삼아 올린 무려 40여 점에 달하는 국보급의 귀중한 역사유물들을 박물관에 진렬하도록 해주시고 모든 참관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심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서비스도 보내주시며 거듭

을 정성을 다해 밝혀주시였다.

이렇듯 철세위인들의 정력적인 지도

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지난 70년 동안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모든 참

관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로 교양하

는 대중교양단위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벽들에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깊이 인식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역사유물들을 소장한 나라의 밀을

직접으로 훑어보는 철세위인의 정력적인

정도로 훌륭하게 개진하고 거울하게

수령께서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었기

때마다 밝혀주시려는 철세위인의

정신을 훌륭하게 전시하였다. 원수님은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한 철세위인

정신을 훌륭하게 전시하였다. 원수님은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한 철세위인

정신을 훌륭하게 전시하였다. 원수님은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한 철세위인

